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3 [22~27]

(가)

㉠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새
 ㉡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뵈서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양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위 마소
 었더타 이 내 몸이 건줄 테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뵈서 본 적 전혀 업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룰가
 었던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확^{*}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이서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님의 업는 것만 얻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게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조를 시기했다 귀신이 해방했다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너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님이 어이 알겠는가
 뵈서서 이리하기 각시님 ^(중략) 갈던들
 설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리할가
 차생의 이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식여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붙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룬명월 되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최고져

[A]

- 김춘택, 「별사미인곡」 -

- * 정확: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 상광 오색: 다섯 가지의 길한 빛.
- * 하일 청음: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나)

님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흠녕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줍이 남거미 나비 잡듯 이리로 촌촌 저리로 촌촌
 외오 풀러 울히 감아 열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
 틈 업시 찬찬 굵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晝夜長常) 뒤트
 러져 감겨 잇서
 동(冬)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 떨어질 줄 이시
 란

- 이정보 -

- * 님으람: 임은.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
 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가 사십삼
 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린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
 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솔
 과 그릇까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
 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
 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
 제 일만 같구나. ㉣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
위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잔 빼는 말투를 흉
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빛을 떨어뜨려 내 이마
 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리고는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냈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
 력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무
 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
 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 빛
 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
 다.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
 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 현재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B]

-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 * 경좌: 서남쪽을 등진 방향.
- *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
 하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 ③ ㉢: 화자가 입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3.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과거에 입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입에게 호소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입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입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삼사월 칠녕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칩이 남거미 나비 감듯'은 입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섯달'은 모두 화자가 입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입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 (다)의 백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 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 봅시다.

학생 1: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학생 2: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학생 3: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학생 4: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보 기>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 읽기 전 활동

<보기>에서 제시되었듯 (가), (나) 작품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이러한 소망이 전생을 통해, (나)에서는 전신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변신의 양상 또한 주의해서 읽어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새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갈을손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각시'에게 자신의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시'의 말은 자신이 듣기에 별로 서러워 보이지 않고, 화자가 더 슬퍼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인연이라 해서 다 같은 인연이 아니고 이별이라 해서 다 같은 이별이 아니라며 자신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여기서 등장하는 '각시'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해당 시의 제목은 '별사미인곡'으로 이는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시인 김춘택이 '갑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시는 '을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충신연주지사의 기본적인 특징인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임금에 대한 시인 자신의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피서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건줄 데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피서 본 적 전혀 업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각시'가 아양을 부려 사랑을 얻었으니 '재앙'이 오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은 님을 모셔본 적조차 없으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엇언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이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는 것만 언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라 원이러니
조물 시기했다 귀신이 꾀방했다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괴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님이 어이 알겠는가

(중략)

*정학: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술.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렇게 입을 모시지 못했음에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서서 이리하기 각시님 갈던들
설움이 이리하며 생각인들 이리할가
차생의 이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쇠어져 구름이나 피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달렸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피어서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붙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류명월 피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취고져

- 김춘택, 「별사미인곡」 -

*상광 오색: 다섯 가지의 길한 빛.
*하일 청음: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가정적 상황을 통해 임을 모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라리~비최고저'에서 화자가 전생을 통해 '구름', '바람', '일륜명월'과 같이 다른 사물로 자신의 존재를 바꾸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품 총평

시인이 해당 시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였는지에 집중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 시가였습니다. 해당 시가의 화자는 전생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소망인 '임을 모시는 것'을 이루고자 함과, '각시'에 비해 자신의 설움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나)

님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쫄녕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침이 남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촌촌 저리로 촌촌
외오 풀러 울히 감아 얼겨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업시 찬찬 굵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晝夜長常) 뒤
트러져 감겨 잇서

동(冬)셋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즌들 떨어질 줄 이시
라

-이정보-

*님으람: 임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쫄녕쿨이 되어 오리나무에 얽힌 쫄나무처럼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3행에서 등장하는 '동셋달 바람비 눈서리'와 같은 시련에도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한 '전신'을 통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자신들의 사랑을 자연물에 자신들을 '전신'의 과정을 통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입니다. 내용의 주제가 표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표현법에 관심을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기에서 제시했듯 '전신'을 통해 사랑을 형상화한다거나, 의태어 '친친', '휘휘'등이 사용되어 쫄나무와 오리나무가 얽히는 모습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보 기>

선생님 :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이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 봅시다.

✓ 읽기 전 활동

(다)에서 기존 묘지명과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읽는다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암시하는 보기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서술상의 관행'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는지, 능동적 언행을 제시하는지, 고인의 행적을 칭송하지 않거나, 가문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지 유의하며 읽어야겠습니다.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백모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가 사십삼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술과 그릇가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경좌: 서남쪽을 등진 방향.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큰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연에서 큰누님이 누구였는지를 서술하는 것은 묘지명의 공통 형식임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보기>에서 이야기한 사대부가 작성한 묘지명의 특징인 '고인의 이름의 언급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큰누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을 깬다고 말하면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집안 빼는 말투를 흉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

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리고는 분가루에 먹
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냈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
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
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
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4연에서는 28년 전 일인 누님이 시집가던 날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묘지명과 차이가 가장 크게 드
러나는데, 누님의 업적이나 가문에 기여한 일이 아닌 자
신의 개인적인 추억을 묘지명에 넣는다는 것은 당시의
관례로써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펼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
무를 둔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
물 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빗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
렇게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
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갔다.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 명정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박지원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큰누님의 상여를 실은 배
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자는 배가 사
라진 강가를 보며 자연물에서 누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그때의 추억을 그리워하
고, 누님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이 부분이 묘지명 속에 삽입된 한시임을 알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박지원이 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시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품 총평

묘지명은 앞부분의 죽은 이의 신분 족보와 행적을 칭
송과 함께 산문 형식으로 서술한 부분과 뒷부분의 죽은
이에 대한 칭송이 들어간 운문 형식의 시가 부분이 존재
합니다. 그러나 연암 박지원의 묘지명에서는 이러한 칭송
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
박지원은 묘지명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 지문입니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
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가)에서는 입을 모시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드러납니
다. 과거의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
습니다.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
황을 강조하고 있다.

→ (나)에서는 사랑하는 상황이 등장할 뿐,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는 상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
하고 있다.

→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누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억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
황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는 '님'을 (다)에서는 '큰누님'을 떠올리며 그
리워하고 있습니다.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 이보소 저 각지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 떨어질 줄 이시라

㉣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별령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
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잔 빼는 말투를 흉내 냈다.

㉤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①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각시보다 자신이 더 슬프기에 각시의 설운 말씀이 의미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후술된 '말씀을~모를새'에서 말씀을 들었으나 서러운지 모르겠다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②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 화자는 인연과 이별의 상황이 모두 달라 본인이 각시보다 더 슬프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후술된 '피서본 적 전혀 없네'에서 화자 자신은 광한적 백옥경에서님을 모셔본 각시와는 다르게님을 모셔본 적조차 없음을 이야기하며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③ ㉢: 화자가 입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화자는 자신은 칩덩쿨이, 그리고 입은 오리나무가 되어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자를 상징하는 칩덩쿨과 입을 상징하는 오리나무가 눈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입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글쓴이가 자신이 여덟 살 때 누님의 결혼 날 누님 앞에서 새신랑의 말투를 흉내 내어 누님을 놀렸던 철없는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⑤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 과거를 요약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누님의 혼인 전까지 8년간 누님과 형제로 지냈던 날이 너무 짧았음을 드러내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3.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자신이 과거에 입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입과 만나게 된 이유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입에게 호소하고 있다.

→ 자신이 참소를 당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입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 입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입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 자신은 얼굴 거동이 입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며, 길쌈과 가무를 몰라 행동과 재주가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풍류 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의 고뇌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입을 모시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보 기>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구름은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화자는 구름이 되어 입에게 '상왕 오색'을 임계신 테 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② (나)의 '삼사월 칩덩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삼사월 칩덩쿨은 화자가 자신이 칩덩쿨이 된다면 오리나무가 된 입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존재로, 화자의 상상력을 통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대상입니다.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칩이 날거미 나비 감듯'은 입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입이 오리나무라면 거미가 나비를 감듯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칩이 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고 있습니다. 이는 입과 자신 모두 각각 오리나무와 칩나무로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를 굳건히 이어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입니다.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섯달'은 모두 화자가 입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가)에서의 '해 다 저문 날'은 화자가 입과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화자가 '각시'에게 '해 다 저문날'이 가는 것을 서러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해당 선지의 오류를 잡아내야 하겠습니다. (나)의 '동섯달'은 화자가 '비바람이 부는 시간'과 같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변신을 바라는 계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참고해두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가)에서의 '해 다 저문 날'은 속미인곡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온 부분으로, 을녀가 갑녀를 만나게 되는 시간대입니다. 자칫 시 단독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속미인곡의 을녀 = '각시', 속미인곡의 갑녀 = 화자임을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나)의 '오리나무'는 입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가)의 바람은 화자가 바람이 되어 입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의 오리나무는 입이 훑나무로 변한 화자와 같이 변신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5.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님과 약속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선지입니다.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 새벽녘의 강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묘지명의 산문 부분에서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라며 [B]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눈물로 옷깃을 적신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까?'라며 떠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그 후 '강 길 따라 돌아서네'라며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글쓴이는 '언제나 돌아올까?'라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님은 죽었기 때문에 이는 누님을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설의법을 활용하여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 다.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답 : ⑤

<보 기>

선생님 :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 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 봅시다.

학생 1 :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

학생 2 :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학생 3 :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학생 4 :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 가문에 대한 자랑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 ㉡: 누님의 남편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아예 누님이 묻히는 곳으로 모두 이주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누님에게 장난치다 맞고 화나버린 남동생인 화자 본인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 시집가던 날을 글쓴이의 회상을 통해 드러냅니다.